

BTS, 코로나 속 유연함 증명...신곡 '다이너마이트' 급 활약

첫 영어곡·디지털싱글로 잇단 K팝 신기록

새 월드투어, 코로나19로 일정 전면 재조정

"힘든 시기에 활력 불어넣고자 완성한 곡"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두 가지 도전을 이뤘다.

지난 21일 오후 1시에 공개된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시도로 사전부터 주목 받았다.

그간 한국어로 곡을 발매해온 이들의 첫 영어 신곡이다.

주로 앨범 단위로 노래를 발표해왔는데, 이례적으로 디지털싱글이기도 했다.

여기에 음원 발매 시간도 그간 관례처럼 여겨온 금요일 오후 6시가 아닌 금요일 오후 1시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결과는 성공적이다. 다이너마이트급 인기를 자랑하며 이전 기록들을 뛰어넘고 있다.

공개 직후 세계 104개 국가와 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뮤직비디오는 20여분 만에 1000만뷰, 24시간 30여분 만에 1억뷰를 돌파하며 K팝 최단 기록을 세웠다.

또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유튜브 첫 상영(프리미어) 동시 접속자가 최소 300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다이너마이트'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에서도 한국 가수 신기록을 세웠다.

22일(현지시간)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21일자 차트에 따르면, 같은 날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디지털싱글 '다이너마이트'는 '글로벌 톱 50' 1위로 첫 진입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정상에 오른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4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이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

사실 이번 '다이너마이트' 발매는 방탄소년단의 사전 계획에 없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새 월드투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BTS 맵 오브 더 솔 투어(MAP OF THE SOUL TOUR)' 일정을 전면 재조정했다.

이후 지난 6월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The Live)'를 열어 팬들과 교감했고 이후 새 앨범을 작업하는 가운데 이번 '다이너마이트' 발매 계획이 가시화됐다.

슈가는 지난 21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코로나 19로 월드투어를 재조정하기로 했을 때 솔직히 무기력, 무력감을 느끼고 갑갑한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처음 겪은 상황이기도 했다. 저희끼리는 달리다가 넘어진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기도 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에게는 이례적인 상황이 중첩이 된 것이다.

결국 방탄소년단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다이너마이트'는 밝고 경쾌한 디스코 팝(Disco Pop) 장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방탄소년단의 마음을 담아 완성한 곡이다.

뷔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평소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을 지닌 있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라며 "그 마음이 모여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앞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기로 했다.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활력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RM은 '다이너마이트'에 대해 "힘든 상황을 돌파해줄 '한줄기 빛'이라고 생각했다"며 "저희는 이 곡을 재충전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방탄소년단은 전자 '맵 오브 더 솔 : 7'의 타이틀곡 '온(ON)'으로 해당 차트 4위를 기록하면서 K팝 그룹 최고 기록을 썼다. 이 차트 K팝 가수 최고 성적은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운 2위다.

그간 미국 내 팬들 '아미'에 의해 주로 소비되던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노래보다 이번 새 싱글이 라디오 등을 비롯해 현지 매체에서 방송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



다. 자막을 보기 싫어 해외 영화보다 국내 영화를 선호하는 미국 대중은 노래 역시 해외 노래보다 자국 노래를 선호한다.

한국어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은 음원 판매량, 음원스트리밍에 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횟수인 '에어플레이'가 약해 핫100 순위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1일 열리는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2020 MTV Video Music Awards)'에서 '다이너마이트' 첫 무대를 펼친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녹화 또는 이원 생중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데뷔 7년 만에 미국 4대 음악 시상식에 모두 참석하는 기쁨을 토하게 됐다.

작년 스타디움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현장을 담은 영화이자 이들의 네 번째 영화인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감독 박준수)는 내달 10일 개봉한다. 숲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담은 담은 JTBC '인더솔 BTS'는 방송 중이다.

또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서울에서 'BTS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 E)'을 온라인 스트리밍과 오프라인 공연으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공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 콘서트에 맞춰 새 앨범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콘서트에 맞춰 새 앨범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콘서트에 맞춰 새 앨범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콘서트에 맞춰 새 앨범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CJENM, 드라마·예능 촬영 중단

"코로나19 확산...상황 예의주시"

CJ ENM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드라마와 예능 촬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CJ ENM은 22일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의 하에 출연진과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tvN과 OCN 드라마 제작을 24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악의 꽃'과 '미씽' 방송일은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며 "참고로 tvN '비밀의 숲2'와 '청춘기록'은 첫방송 전에 촬영을 모두 마친

작품으로 예정대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을 중단한다. CJ ENM은 "야외 촬영 중심 콘텐츠인 tvN '서울촌놈'은 오는 31일까지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기 촬영분으로 방송될 예정이며, 촬영 중단에 따른 편성 변동이 생길 시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엠넷 '엠 카운트다운'은 차주 휴방될 예정이다. CJ ENM은 "이외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출연진과 제

작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부 제작 일정 변동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작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송사들은 잇따라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 KBS는 이날 긴급대책회의 결과 '도도솔솔라라솔', '바람피면 죽는다', '오! 삼광빌라' 등 주요 드라마의 제작을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JTBC도 '18 어게인', '경우의 수' 등 방송을 준비하던 드라마 6편의 촬영 중단을 결정했다. 넷플릭스도 제작 중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콘텐츠 촬영을 중단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방송, 김호중 편집에도 시청률 1위

21일 시청률 15.2%·13.6% 기록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내일은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열창하고 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가 김호중의 통편집에도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1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콘서트'는 전국 유료가구 시청률 기준 1부

13.589%, 2부 15.192%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작진이 예고한 대로 김호중의 분량은 편집됐다.

개인 무대는 통편집이 이뤄졌고, 단체 무대는 풀샷으로 잡혔다. 앞서 TV조선 측은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예정인 출연자의 방송 노출은 지양한다며, 김호중의 분량 편집을 밝힌 바 있다. 김호중은 최근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방송은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재편집한 것이다. '미스터트롯' TOP 7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큰 인기를 끌었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열창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있지 '낫 사이' 뮤비, 1분에 2만명 이상 시청

'블립' 앱 분석 결과



그룹 '있지(ITZY)'의 신곡 '낫 사이(NOT SHY)' 뮤직비디오가 1분에 약 2만 명이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1일 케이팝 팬덤 앱 '블립'은 "있지가 데뷔한 후 공개한 모든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달성한 가운데, 이번 신곡 '낫 사이'도 무서운 조회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있지'의 '낫

사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18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으며, 발매 4일차인 21일 오후 6시 2030만 뷰를 넘어섰다.

또한 '낫 사이'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공개 당일 오후 9시엔 1시간 동안 약 148만 뷰가 증가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1분에 약 2만 476명이 시청한 수치다.

이에 대해 블립은 "전자 '워너비(WANNABE)'의 경우 시간당 최고 조회 수 증가량이 당일 오후 10시 120만 뷰였던 것을 감안하면 '낫 사이'는 전자 대비 약 28만 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 '워너비'가 5000만 뷰 배지를 획득하기까지 121시간이 소요된 기록을 '낫 사이'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5천만 뷰

배지 획득'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블립 앱에서는 아티스트의 규모 있는 뮤직비디오 조회 수나 음원 좋아요 수 등의 기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배지'를 아티스트 보도 영역에서 수여하고 있다.

블립 앱은 데이터를 알려주는 '연구소'와 아티스트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아티스트 보드'를 제공한다.

뉴스, 트위터, 유튜브, 커뮤니티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블립은 강다니엘을 비롯해 레드벨벳, 마마무, 몬스타엑스, 블랙핑크, 샤이니, (여자)아이들, 아이유, 아이즈원, 에스에프라인(SF9), 엑소, 엔시티(NCT), 있지(ITZY), 정세운, 트러저, 트와이스 등 총 16팀을 서비스하고 있다.

러블리즈, 1년4개월만에 컴백... '시도하지 않은 콘셉트'

내달 1일 미니 7집 발매



그룹 '러블리즈(Lovelyz)'가 1년4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22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러블리즈는 다음달 1일 미니 7집 '언포겟터블'과 타이틀곡 '오블리비아(Obliviate)'로

로 가오계에 돌아온다.

컴백에 앞서 다양한 티저 콘텐츠를 통해 시크한 카리스마의 블랙 러블리즈부터 청순함이 담긴 순백 러블리즈까지 변신을 예고했다.

지난 21일에는 콘셉트 트레일러와 세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콘셉트 트레일러 속 러블리즈는 순백의 화이트 옷으로 청순미를 강조했다며 특히 갸께 물들어가는 화장미를 들고 오묘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러블리즈의 멤버들은 지난해 완전체 활동 이후 각자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케이와 수정은 데뷔 후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지수는 웹드라마 '7일만 로맨스'에서 1인

2역을 연기하며, 연기자로서 영역을 넓혔다. 예인은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에서 활약했다.

미주는 KBS 2TV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tvN '장보고', 유튜브 예능 '미주픽츄' 등에 출연했으며, 오는 9월 3일 첫 방송되는 tvN '식스센스'에서 유재석, 전소민, 오나라, 제시 등과 함께 고정 멤버로 발탁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러블리즈 멤버들은 솔로, 드라마, 예능 등 어떤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팔방미인"이라며 "새 앨범에서 이전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콘셉트에 도전하는데, '만능돌'다운 콘셉트 소화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